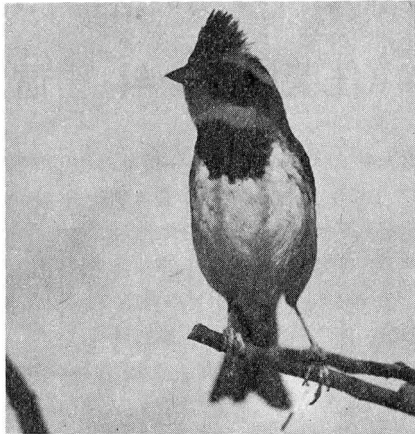


노랑턱멧새

學名 *Emberiza elegans elegans*
英名 Yellow-throated Bunting



사시사철 우리의 산야 어디에서나 쉽게 만날수 있는 텃새이다.

화려하다고는 할수 없으나 읍내 처녀같은 수줍은 듯한 모양새지만 발정기인 4월에 들어서면 감미로운 노래 소리는 계속 커지고 매력적인 머리의 빨갛을 자주 세우는데, 이새의 돋보이는 행태(行態) 중의 하나이다.

이때쯤이면 눈썹선과 앞가슴의 검은 무늬는 진흑색으로 변하여 흡사 나뭇잎에 나선 화장한 여성을 연상케한다.

텃새라고는 하지만 늦가을 부터는 한두마리씩 모이기 시작하여 차츰 무리를 이루는데 적을때는 수십마리에서 수백마리의 단위로 군집생활을 하며 겨울을 나는것이 보통이며 야산의 잔솔밭이나 농경지가 가까운 덩불에서 생활하기 좋아하고 일정한 코스를 정해 놓고 떼지어 다니는 습성이 있다.

이런 무리생활은 3월부터 번식을 위해 쌍쌍이 분산 형태의 독립생활을 하게 되는데 다소 인적이 뜸한 산으로 올라가 번식을 한다.

대개 원시상태의 산림을 좋아하고 신생림지대에는 기피하는 습성이 있으며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영역이 형성되면서 자기 자리를 철저히 지킨다.

이때쯤이면 으레 목청을 높혀 크게 지저귀는데 이 지역은 내땅이라는 경고의 소리이고 배우자에 대한 과시의 행동이다.

글·사진 李正雨 (鳥類研究家)

그래서 봄 산천은 새소리로 가득차게 되는데 문자 그대로 「꽃피고 새우는」화사한 계절임을 실감나게 한다.

노랑턱멧새의 산란은 5월 중순부터 시작이 되는데 주로 나무 밑동의 땅에다 풀뿌리를 엮어 둥지를 틀고 드물게는 1m미만의 나무가지에 틀기도 한다.

둥우리의 산좌에는 반드시 말총같은 동물의 털을 깔아 폭신하고 정갈하게 알을 유지하는데 지혜를 다한다.

보통 이새들의 둥우리가 잘 발견되지 않는 것은 땅에다 접시형으로 은폐(隱蔽)한 집을 짓고 인적이 뜸한 위치에 짓기 때문이다.

이렇게 교묘한 둥지를 튼 새들도 천적은 있게 마련이다.

특히 노랑턱멧새의 알과 새끼는 뱀이나 쥐따위의 쉬운 사냥감이 되고 육추기간 중에도 어린새끼는 조그만 충격에도 대단히 예민하여 둥지를 튀쳐나가는 소질이 다분히 있어 심지어 산까지라 부르는 어치의 밥이 되기도 한다.

한배의 산란수는 5개가 보통인데 알은 흰색바탕에 적갈색과 흑갈색의 불규칙한 점무늬가 무질서하게 산재해 있다.

포란은 암컷이 주로하는데 13일쯤 품으면 부화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육추기간은 보름쯤 걸린다.

이 육추기간은 어미새로 부터 독립될수 있는 기간이 아니고 일단 천적으로 부터 피하기위해 둥우리를 떠나 이 덩불과, 저 덩불사이를 겨우 날아다닐 정도의 미숙조를 말하는데 스스로 먹이를 찾을때까지는 생후 30일이상이 되어야 한다.

먹이는 곤충과 풀씨를 먹는 잡식성인데 새끼를 기를때는 곤충만을 공급한다.

천적으로부터 빠른 탈피는 많이먹여 빨리 자라게 해야한다는 섭리를 어미새 자신이 잘 알고 있기때문에 섭없이 곤충을 물고 오는데 이 일대의 산림해충은 이때 많이 구제된다.

곤충 발생이 정지되는 가을부터는 결실이 되는 풀씨나 종자를 먹으며 평온한 나날을 보내는데 무리생활로 이어지는 생활이 반복된다.